

## 1. 환영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 합니다. 아래층 친교실에서 친교의 식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 2. 감사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고재경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3. 세례 문답교육

세례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조혁연 전도사에게 신청해주시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4. 교회 달력 배부

내년도 달력을 예배 후에 출입구에서 배부합니다. 각 가정당 1부씩 가져가시되 전도용으로 1부 더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 5. 목장 교회 모임

한 달에 한번 이상 목장 별로 모임을 가지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말씀 그리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푸른목장은 12월 9일 오후 4시에 조혁연 전도사/ 김효진 사모 맥에서 모입니다.
- 호프목장은 12월 9일 오후에 김의경 집사 맥에서 모입니다.
- 모모목장은 12월 14일 하선미 전도사 맥에서 모입니다.

## 6. 교회 연말 일정

- 12월 2일: 새해 예산 및 결산 공도의회
- 12월 16일: 선교회 정기총회
- 12월 23일: 성탄주일, 세례식 및 성찬식
-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 7. 금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갖게 되는 금요 중보기도 모임을 저녁 8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보기도운동이 일어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 8. 교인 동정

- 1) 새가족 환영: 이정환 선교사/이혜진 사모, 기석, 대성 (250-230-9901); 류정아 교우/권진현/권유현.
- 2) 김재상 장로, 박장진 권사, 최명균 집사, 김삼섭 집사, 김의경 집사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순서 담당 및 봉사자

이번 주일 친교담당과 식당봉사는 모모 목장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10. 예배 봉사자

다음 주일 기도: 이정훈 선교사  
12월 봉헌 봉사자: 장혜진 집사

## 11. 특별 기도제목

- 1) 교회 사명선언문: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소서
- 2) 성도중에 특별한 건강회복이 필요한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 3) 다음세대들에게 영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 4)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와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 5) 상처가 많은 원주민들을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북한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20권 49호  
2018년 12월 9일

사명선언문: 이웃을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

## 5대 비전

- † 감동적인 예배
- † 사랑의 교제
- † 질적인 성장
- † 헌신적인 사역
- † 생명의 증거

오전 11:00      주일 예배      인도/ 김의중 목사

*찬양 및 목상기도 /	다같이
*찬 송 /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사도신경 /	다같이
참회기도 /	김경배 목사
성경봉독 /	눅 2:8-20
성가대찬양 /	성가대
설교 /	고재경 목사

“하나님의 배려”

환영과 소식 / 인도자

\*찬 송 /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

\*봉헌기도 / (현금은 예배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인도자

\*축도 / 김의중 목사

(\*표는 일어서서)

오후 7:30      수요 찬양과 말씀 기도회      인도/ 김의중 목사

찬양 인도 / 최정열 형제

설교 / 김의중 목사

새벽 6:00 (화~금)      매일 새벽기도회      인도/ 김의중 목사

“전도서 연속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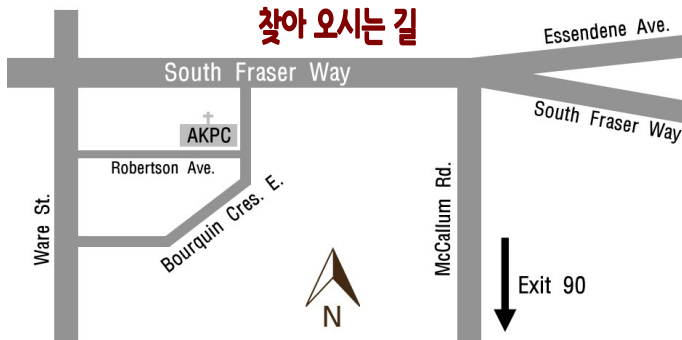


**캐나다장로회**  
**아보츠포드한인장로교회**

Abbotsf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2597 Bourquin Cres. E. Abbotsford, B.C., V2S 1Y6 T)778-808-2333  
abbotsfordkorean.com akpchurch.com

## 찾아 오시는 길



살며 생각하며...

행복한 신앙을 위한 27가지 조언

8.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우리가 재미있어하지도 않으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애쓰는 수고에 비해서 별로 열매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만 두라.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라. 당신이 즐길 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찾라. 지금은 불행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은 더욱더 믿기 어렵다. 지금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

9. 먹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의 감각이 발달된 이들은 오직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몸의 감각을 통해서 주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맛있는 음식, 육체의 쾌락,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눈에 보이는 소유물,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 이러한 이들은 아마 유명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이며 성공한 목회자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영혼의 감각이 눈을 뜨고 발전한 이들은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맛보고... 그러한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만족을 안다. 음식을 나눔보다 마음을 나누고 내면의 사랑을 나누며 심령 깊은 곳의 평화를 경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의 아름다운 교류와 풍성한 은총을 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10. 사역자에 대하여 기죽지 말라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받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좀 낮이 간지럽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목사 자체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님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상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후시라도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열등의식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일이다. 성도들은 사역자에 대하여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 영적인 길과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사역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일이나 사명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의 부르심은 모두 다 아주 귀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질과 재능과 관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은 목회 못지 않게 중요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다.

11. 원하지 않는 요구를 거절하라  
보증을 서는 일 같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관계가 불편해질 것도 걱정스럽고 상황이 어려워져 하는 부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만약 잘못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즐기며 모든 책임을 질 마음이 아니면 성경은 보증을 서는 일을 금하고 있다.(잠언6:1-2) 특히 보증은 배우자와 뜻을 같이 해야 한다. 둘 중 누구라도 반대하면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보증 외의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아주 많다. 어떤 이들은 너무 심약해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정에 끌려 다니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거절의 대상이 부모님이거나 영적인 지도자일 때는 더욱 힘들다. 목회자, 사역자는 어떤 절대권력자가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조건 사역자의 말이란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역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상호간에 겸손하고 예의바른 자세는 필요하다. 다만 사역자의 요구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감동이 다를 때는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12. 사역의 부담을 내려놓으라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마땅히 자신의 열정과 힘을 다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성실한 사역자라면 대체로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여러 어려움에 동참하고 자신의 몸과 상황과 심지어 가족도 돌보지 않고 주야로 땀다. 아침과 낮과 밤과 휴식이 없이 뛰는 그러한 의식과 부담은 문자 그대로 사역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상태일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지나치게 목회자 의존적이다. 그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믿는다. 그래서 모든 좋고 나쁜 일에 사역자들이 나와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중매자이다. 즉 성도와 주님을 서로 결혼시켜 잘 살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이 사역자의 일이다. 그런데 이 중매쟁이가 중매를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의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를 알지 못하는 성도는 주를 찾아야 될 상황에서 사역자를 찾는 결국 사역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역자들은 대체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해결사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사역자는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기 힘에 지나친 것은 부담 없이 거절해야 한다. 사역자는 뭐든 부탁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다음주 계속)

-정원 목사-

지난 주에 드린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경배/김은실, 김선옥, 남기원/김혜신, 박장진, 엄태현/박효순, 최정한/신현미.
주 일	김익종/이성순, 강명례/강명희, 강수석, 강영구, 고재경/박혜옥, 김미애/조용복, 김선옥, 김성웅/김안나/지성, 김영미A/중수, 김영미B/호운, 김의경/영빈/영안/영우, 김일권/최은영, 남기원/김혜신/우주, 박덕선/이혜선, 박장진, 엄태현/박효순, 유재용/장혜진, 유중영/원우숙/은성/찬양, 이병규/이주성, 이선아/윤지/윤영, 장혜진/호현/주현, 조혁연/김효진/하루, 진우형, 최우진/태현/성민, 최정남/세은, 하선미/신정목/재하, 홍석/이미숙, 최지현/나은, 이정훈/이혜진, 유초등부, 학생부, 무명.
감 사	김익종/이성순, 박장진, 유재용/장혜진, 이병규/이주성, 이정훈.
선 교	김미애/조용복, 김선옥, 조혁연/김효진, 육데일 프리스쿨.
합 계	\$2,309.10.

예배 위원

다음 주 기도	이정훈 선교사
안 내 위 원	김경배 목사 / 한상순 전도사
12월 헌금위원	장혜진 집사
이번 주 친교봉사	모모목장 회원
이번 주 주방봉사	모모목장 회원

예배 시간 및 모임 안내

예 배 시 간		모 입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Abby Bible College	디모데전서 연구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	오후 7:30		화요일 오전 10시
중 고 등 부	오전 11:00	2 0 3 0 부 모 입	주일 오후 2시
아 동 부	오전 11:00	개 인 중 보 기 도	수시로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6:00	목 장 모 입	각 목장 별로

섬기시는 분들

담임목사:	김익종
사역 담당:	조혁연 (교육/사무), 하선미 (주일학교), 고재경 (2030부), 김경배 (시니어), 이정훈 (선교), 장혜진 (새가족), 김은실 (지휘자), 한상순 (심방), 최정열 (찬양)
시무 장로:	이병규, 이혜선      장로: 김재상, 박동욱, 박덕선